

우리집은 사랑으로 가득해



김영순



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장난
치듯 들어왔어요.

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은재의
이불을 살짝 걷어냈어요.

"일어날 시간이야, 우리 멋진 아
들."



아빠는 부엌에서 김을 굽고
있었어요.

"오늘은 참기름 향이 춤을 추
네!"

아빠의 목소리가 고소한 냄
새에 섞여 방 안으로 퍼졌어
요.





아침 식탁엔 자꾸 웃음이 터
졌어요.

희재가 미역국을 후루룩하다
콧잔등에 묻히자,
엄마, 아빠, 은재 모두 소리
내 웃음을 터뜨렸어요.





학교 가는 길, 엄마가 은재의
손을 꼭 잡아주었어요.

"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체육
시간이 있지?"

엄마 손끝에서 작은 용기가
전해졌어요.





교실 창밖에 빗줄기가 졸졸
흐르기 시작했어요.

'엄마가 올까, 아니면 아빠
가 올까?'

은재의 마음에 작은 물방울
이 맺혔어요.





종이 울리자, 교문 앞에 아
빠가 서 있었어요.

커다란 우산을 펼치며 말했
죠.

"우리 은재, 빗방울한테 잡
히면 안 되지!"

아빠의 우산 속은 든든한
요새 같았어요.





집에 오니, 엄마가 따끈한
코코아를 건네주었어요.

"비 오는 날엔 이게 딱이
지!"

달콤한 향기에 은재의 마음
이 말랑말랑해졌어요.





저녁 준비를 함께했어요.
은재는 당근을 씻고, 희재
는 콩나물을 골랐어요.
주방은 부지런한 발자국과
웃음으로 가득했어요.





식탁 위 작은 전등이 반짝
켜졌어요.

"오늘도 함께여서 든든하
다."

아빠의 말에 모두의 눈웃음
이 동시에 번졌어요.





저녁을 마친 뒤, 거실에서
보드게임을 펼쳤어요.
주사위가 구를 때마다 환호
성이 따라왔어요.
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다
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어
요.





잠자기 전, 엄마와 아빠가
은재를 차례로 안아주었어
요.

"오늘 하루, 네 덕분에 더
즐거웠어."

그 말이 은재의 가슴속에
작은 불빛처럼 남았어요.





눈을 감으니 하루가 필름처럼 스쳐갔어요.

그 속엔 웃는 얼굴, 따뜻한 손길이 가득했어요.

우리 집은... 웃음이 창문 틈까지 번져 있어요.





우리 집은 사랑으로 가득해!

발행 | 2025년 9월 11일

저자 | 김영순, 챗GPT, imageFX

기획 |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

지도 | 김정훈

본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의
2025년 읽·견·쓰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도서입니다.

© 사탕별에서 온 편지 2025

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.